

## 지역주의의 역동성과 전망: 투표, 편견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이명진<sup>1)</sup>

### 요약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주요용어: 지역주의, 선거, 투표, 지역간 거리, 내각중심제

### I. 머리말

낙선운동, 선거법 개정, 후보자정보공개 등 선거운동 방식이나 선거풍토의 변화 등 한국선거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경향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와는 달리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 65개 선거구에서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며, 호남에서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후보이거나 '당선후 민주당 입당'을 공언한 친여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이렇게 여러 선거에서 보이는 선거결과와 지역적 편중성을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단면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많은 지식인들은 이와 관련된 지역갈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월간중앙, 1988; 신동아, 1988; 서명숙, 1999; 임현진, 1999).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지역갈등의 문제점을 접하곤 한다. 특정한 지역출신들의 인사와 관련된 연고주의, 특정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지역주의와 관련된 일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이진숙, 1959; 김혜숙, 1988; 유영을 외, 1999).

한국사회의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데에는 다른 연구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1)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주제는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 내에서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Hueglin, 1986; 안병영, 1988). 첫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간의 객관적인(objective) 차이 혹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적 투표행위나(Kim and Koh, 1980, 김형국, 1990; 이갑윤, 1990; 박찬욱, 1992; 조기숙, 1992), 지역간 엘리트 충원문제(김만홍, 1987; Shin and Chin, 1989; 김용학, 1990; 신명순, 1993), 지역간 경제격차(문석남, 1989; 김익기, 1990), 세대간 사회이동(차종천, 1990)이나 직업상 차별(Yu, 1990) 등은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구주제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주의의 문제를 '자원배분의 문제'와 구체적인 행위 및 결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안병영, 1988). 두 번째 유형의 연구들은 지역주의의 주관적인(subjective) 측면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혼형태(김용학·김진혁, 1990), 지역감정(이진숙, 1959; 김진국, 1988; 민경환, 1988; 고희화, 1993), 지역간의 거리(나간채, 1990; 이재열, 1991; 이명진, 1997) 등이 지역주의의 주관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의 대표적인 주제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첫 번째 유형의 연구와 달리 지역주의의 문제를 '편견의 고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안병영, 1988). 즉 지역주의를 출신지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과 연결시키면서 지역주의를 집단의식화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후자의 유형이 강조하는 지역주의의 주관적인 측면이, 항상 전자의 유형이 강조하는 지역주의의 객관적 측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Hueglin, 1986). 객관적인 지역간의 차이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사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같은 어떠한 매개체가 필요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이 유사한 매개체를 통해 객관적인 지역차이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주의는 두 가지 측면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포함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송복, 1997; Kim and Lee, 1998).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의 연구들은 지역주의를 보는 다른 배타적인 시각과 접근 방법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라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구실을 하는 접근법들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역주의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동시에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선거나 투표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적인 편견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차별과 관련한 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미흡했거나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분야를 탐구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주의적 투표연구와 선거연구에서는 출신지역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박경산, 1994). 이는 '지역주의'가 청소년기를 보낸 지역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과 관련이 많은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 단점은 급격한 인구유입을 통해 성장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지역주의 경향을 적절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점은 그렇다면 거주지 이동과정을 겪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지역주의의 차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주의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신동아, 198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6).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각종 선거자료와 한국정치학회 선거연구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997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조사>와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1996년에 실시한 <소비자의식조사>를 사용한다. <대통령선거조사>는 대통령선거에 관련된 각종 설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학분야에서 수행한 조사와는 달리 결혼, 동업 등 지역주의의 사회학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들로, 표집방법은 다단계 확률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집된 응답자 수는 1,207명에 이르고 있다(이남영, 1998). <소비자의식조사>는 전국의 15세 이상 6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지역별 무작위 층화표집(proportional probability sampling) 방식으로 추출되었으며, 최종 표본 규모는 8,145명이다. 자료에는 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매체접촉 실태, 정치·사회의식, 가치관, 광고관련 태도, 소비자 의식/행동,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II. 지역주의와 선거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 15대 대통령선거의 도별 득표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II-1>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율을 백분율로 환산해 정리해 놓은 것이다. 지역구분은 기본적인 행정조직인 도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광역시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 포함시켰다.

### <표 II-1>

<그림 II-1>은 이러한 자료를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서 얻어진 지역별 벡터값을 좌표로 삼아 2차원 그래프에 표시한 것이다(Geenancre and Underhill, 1981; Hand, 1981; Greenacre and Blasius, 1994; 이명진, 1997). 방송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김대중 후보는 국토의 서쪽에서 주로 득표를 이회창후보와 이인제후보는 국토의 동쪽에서 많은 득표를 하였다. 이러한 동서의 축은 다른 아닌 호남과 영남을 나누는 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차이의 대부분(93.8%)을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7%가량을 설명하고 있는 축은 이회창/김대중후보와 이인제후보를 구별해 주는 것이다. 이 축에서 지역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영남 즉 경북과 경남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공식적인 선거자료에서 표현되는 지역의 개념은 거주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간의 이동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거주지를 지역으로 취급하는 것이 지역주의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 지역을 거주지로 다루는 것은 출신지와 관련된 지역주의의 경향을 포착할 수 없게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치분야에 있어서 지역주의에 대한 두 번째 분석은 선거연구회 조사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 <그림 II-1>

<표 II-2>는 15대 대통령선거 직후에 실시한 조사자료에서 나온 자료를 출신지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비수도권 출신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출신지와 거주지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 표에서도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호남과 영남으로 대표되는 지역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 이와 아울러, 그 정도는 약하지만 수도권 거주자들은 각 지역 출신별로 자기 출신 거주자들과 유사한 투표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거주지로 지역구분을 하여 살펴볼 때, 영호남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유권자의 투표경향은, 사실 각 지역별 출신지역에 따른 지역주의적 투표가 서로 상쇄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 선거과정에서, 지역적 편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둘째, 이와 동시에 수도권 이주라는 경험은 출신지역에 따른 지역적 편중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수도권 이주라는 조건은 타 지역사람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고, 같은 지역 사람들과 밀접한 유대의 강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표 II-2>

### <그림 II-1>

## III. 지역주의와 편견

일상생활에서 지역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은 지역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앞에서는 투표라는 일회적인 정치행위를 통해 나타난 정치부문에서의 지역주의라면,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부문에서의 지역주의라고 볼 수 있다. <표 III-1a>는 각 출신별 결혼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세로는 평가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가로는 평가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표는 원래의 자료를 표준화한 자료이다. 즉, 자기 지방 출신자들에 대한 결혼을 찬성하는 비율을 100으로 놓고 어떻게 다른 지방을 평가하는가를 측정한 자료이다. 이렇게 표준화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별 점수와 사례수의 차이로 인한 분석결과의 차이를 방지할 수 있다( Bishop et al., 1975).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라도 출신자들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방이 자기지역을 100이 찬성한다고 했을 때 절반이하 가량이 찬성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른 지방의 평가와는 상이하게 전라도 출신자들이 가장 편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적대감이 심할 것으로 믿어지는 있는 경상도 출신자들에게 대해서도 67%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경상도 출신자들은 결혼 상대자로서 지역편견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전라도 출신자들에 대하여 41.9%정도만이 찬성하고 있다.

<표 III-1b와 III-1c>는 각 출신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와 각 출신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득이라는 항목은 다른 지역에 대한 평가와 자기 지역에 대한 다른 지역 출신자의 평가의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양부호는 일종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음부호는 특정 지역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을 나타낸다. 전라도 출신자들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낮게 하는 편이고, 자신들이 남에 대해 평가하는 정도에 비해, 남들은 전라도 출신자들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타 지역 출신자들은 평가하는 정도도 높고, 자신들의 남들에 대한 평가보다, 남들에게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III-1>은 이러한 표준화된 표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응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벡터를 도표로 만든 것이고, <표 III-2>와 <표 III-3>은 일상생활에서 지역적 차별과 편견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이다.

<표 III-1>

<표 III-2>

<표 III-3>

<그림 III-1>

## VI. 정치제도의 변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역적인 차이가 출현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호남지역에서는 김대중으로 대표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강도는 약간 틀렸지만 박정희로 대표되었다. 물론 이후로 전개되는 지역주의의 문제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정책과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최초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김대중에 대한 선거와 투표에서 호남지역의 동일시 경향은 한국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각 지역에 근거를 둔 지역당의 출현이라는 정치적인 현실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 정당은 여전처럼 국회에서 ‘안정석’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지역당의 색채를 더해가고 있다. 주요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지역성에 더욱 기대는 한, 지역적인 한계 피해보려는 각 정당의 노력은 실패에 돌아갈 확률이 크다.

다음 표들은 지역적 차별과 편견이 선거제도와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경향이 뚜렷한 지역성은 앞으로의 정치현실의 전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지역적 근거가 형성되면, 유권자나 정치엘리트들은 이를 계속 이어가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공고화하려는 정치엘리트들로 이루어진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은 좀 더 커질 것이다.

&lt;표 IV-1&gt;

&lt;표 IV-2&gt;

&lt;표 IV-3&gt;

&lt;표 IV-4&gt;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역주의의 양상을 정치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들을 비교하였다. 전자는 투표행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 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편견을 응답자의 의견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차이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전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고, 그 중에서도 경상도와 대비가 가장 극명하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김진국, 1988; 김혜숙, 1988). 물론 정치적인 지역갈등의 양상이 일상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역갈등이 특정 정치인을 통해 표출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등 그 순서와 인과과정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의 지역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측면--흔히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지역정서--만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지역주의의 문제는 좀 더 깊은 사회적인 편견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집권경험, 제도의 변경이나 정당간의 합당을 통해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약화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의를 상당히 표면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성급하고 단순한 논의이다. 설사 그러한 것이 표면적인 연합, 합당 등으로 약화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가 깊은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치엘리트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정치적인 단결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체험한 각 지역간의 이해는 이러한 경향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치엘리트들은 지역적인 기반을 강화시키는 내각중심제를 선호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적인 정치지도자의 부재는 이러한 경향과 지역당의 출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홍화 (1993) 자료로 엮은 한국인의 지역감정. 서울: 성원사.  
 권태환 (1980) "도시화와 인구."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서울: 민음사.  
 김만홍 (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김문조 (1990) "한국의 지역주의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153-66. 서울: 성원사.  
 김용학 (1990) "엘리트 층위에 있어서의 지역격차."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265-302. 서울: 성원사.  
 김용학·김진혁 (1990) "지역감정의 관계적 분석: 결혼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24집 (여름호): 65-86.  
 김익기 (1990) "지역감정 해소방안: 사회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

- 역주의와 지역갈등』, pp. 385-402. 서울: 성원사.
- 김진국 (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221-49. 서울: 성원사.
- 김형국 (1990)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형태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pp. 207-32. 서울: 나남.
-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123-70. 서울: 성원사.
- 나간채 (1990)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79-100. 서울: 성원사.
- 문석남 (1990) “지역격차의 역사적 배경: 해방으로부터 196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pp. 34-44. 서울: 성원사.
- 민경환 (1988) “집단간 갈등- 그 병리의 이해와 처방.” 한국심리학회 편.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 91-121. 서울: 성원사.
- 박경산 (1994) “한국선거연구의 방법론적 재조명.” 김웅진 편. 방법, 방법론과 한국정치학. pp. 139-156.
- 박찬욱 (1992) “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pp. 67-115. 서울: 나남.
- 송복 (1988)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경문사.
- 서명숙 (1999) “지역감정을 사법 처리한다?” 시사저널 제484호.
- 석현호 (1992) “불평등과 형평연구의 설계.”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49-70. 서울: 나남.
- 선거연구회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관계 자료. 미간행 출판물.
- 신동아 (1988) 1월호.
- 신명순 (1993) 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 신석호 (1999) “99년 검찰파동의 시작과 끝.” 신동아 3월호.
- 안병영 (1988) “풀어야 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 신동아 1월: 294-302.
- 유영을 외 (1999) “한국사회의 권력이동.” 신동아 2월호: 144-203.
- 월간중앙 (1988) 6월호.
- 이갑윤 (1990) “투표형태와 민주화.”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167-82. 서울: 나남.
- 이진숙 (1959) “8도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74-87.
- 이갑윤 (1990) “투표형태와 민주화.”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pp. 167-82. 서울: 나남.
- 이명진 (1997) “지역주의와 정권: 지역별 집중도와 거리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1집, 1호.
- 이재열 (1996) “연결망 분석: 지역감정과 정체성 연구의 한 방법.” 제주도 지역사회연구 워크샵.
- 임현진 (1999) “지역갈등은 망국병.” 한국일보. 2월 19일.
- 전광희 (1990) “한국사회의 인구이동과 지역갈등의 구조.”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성원사.
- 조기숙 (1992) “합리적 유권자 모델과 한국의 선거분석: 여촌야도, 지역주의, 정당분위 투표를 중심으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pp. 401-434. 서울: 나남.
- \_\_\_\_\_ (1996) 『합리적 선택』. 서울: 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제15대 대통령 선거총람』.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차중천 (1989) “지역주의적 선거와 유권자: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에 대한 로짓 분석.” 『한국사회학』. 제22집 (겨울호): 143-160.
- \_\_\_\_\_ (1990) “세대간 사회이동의 지역차이.”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193-212. 서울: 성원사.